

영등포구 가을 밤 음악으로 시민공감 형성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구민사랑 콘서트’를 오는 17일과 24일 오후 7시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도심 속에서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2~3차례 영등포 곳곳에서 진행해왔다.

첫 번째 콘서트는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개최한다. ‘네 박자’와 ‘차표 한 장’ 등 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송대관을 비롯해 편승엽, 이상번, 정선화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두 번째 콘서트는 대림3동의 서울신영초에서 열린다. ‘애모’와 ‘남행열차’ 등을 부른 가수 김수희 외에도 신유, 현당, 양키스, 전승희 등이 출연해 관람객과 하나 되어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관람을 희망하는 구민은 당일 공연 장소로 찾아가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온 가족이 음악을 들으며 가을 정취에 취할 수 있는 콘서트를 마

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고 친숙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670-3128)로 문의하면 된다. /본사기자

영등포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수강생 모집

영등포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강화를 개설하여 이들의 권익 증진과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영등포구가 전국에 국제 결혼 이주여성, 혼혈아동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말경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은 매주 2회, 14:00

~17:00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문제집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장소는 서울영등포경찰서 2층 소회의실로 지정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 국내 장기 합법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만 접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로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정의석(도로교통 관련 출제위원) 교수

가 맡게 되며 강의내용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의의, 종류, 취득과정, 운전에만 따른 마음가짐, 법적 책임 등으로 준비되어 있다.

참여자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외 사제로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 02-2675-01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서울영등포경찰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위치)

/본사기자

중동포 김진희씨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중국 흑룡강성 벌리현 출신 김진희(24세)씨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에서 주최한 ‘2014년 제11회 전국장애인과 함께하는 문예 글짓기 대회’에서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10월 24일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조선족이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동포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조선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운 해거로 기록될 것이다.

김진희씨의 장관상 수상으로 하여 내국인들이 중국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다보니 중국에 남은 자녀들은 남의 손에서 자라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공부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진희씨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하나

은행에 (중국 상해)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외유학을 가려고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하고 있다.

이번 안행부 장관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만이 아닌 모든 중국동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기회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김진희씨의 생활은 모든 동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24일 (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7층 기자회견장에서 하게 된다. /본사기자

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체크포인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만기 직전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세입자들이 많다.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경우에 세입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http://blog.naver.com/il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 및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만료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갹신거절의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이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지를 할 때에는 날짜를 명시하여 그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도록 전세금반환을 청구하고,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관하여도 집주인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정확히 협의가 되었는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하여 집주인과 협의할 때에는 그 날짜를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종종 집주인은 ‘몇 달 말미를 달라’고 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묵시적갱신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만료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순응하기 보다는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에 관하여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과 협의가 정확히 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부당한 주장이 반복된다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적처가 필요한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감정적인 손해까지 증대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집주인의 부당한 요청을 들어 주는 것도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결정에 있어서 소송 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쉬

운임은 아니다. 또한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도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변론을 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세입자들을 위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만 하다. /본사기자

서울시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 개선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찾는데 혼란을 주는 외국어 표기가 잘못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 9월 30일(화)~10월 31일(금)까지 32일간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바로잡아주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 표지판은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11종 안내표지판(관광안내표지판, 문화재 안내표지판, 한양도성안내표지판, 북한한옥마을 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주소명 안내판, 사설안내표지판, 지하철안내도(1~8호선), 버스정류소안내판, 지하도상가안내판,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공원 안내표지판)이다.

잘못된 외국어 표기는 서울시 외국어표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안내표지판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와 관할 자치구로 통보해 정비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고건수를 합산해 많이 신고하거나 중요한 오류를 신고한 사람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발견하면, 서울시가 구축한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시스템(dictionary.seoul.go.kr)에 접속하여 외국어 표기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키서울'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14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을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위키서울’은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하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등이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관련 경연대회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단순 아이디어 제안식이 많았으며 이번 대회는 우리지역 일상의 문제를 시민이 직접 도전해 해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1회 대회에는 약 1천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중 43개가 선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1억원 자금을 모금했으며, 2회 대회에선 단기프로젝트형 아이디어 319

개를 모집, 이중 47개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이번대회에는 서울의 사회적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31일(금)까지 ‘위키서울홈페이지’(<http://www.wikiseoul.com>)에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된다.

또한 공고일 현재 기존 주민등록상 서울시거주자, 법인은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법인 등 기관은 설립 1년 이내인 곳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대 30개 프로젝트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아이디어 실행을 위해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서울시 사회혁신전문기관 공동으로 멘토링과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최대 500만원을 프로젝트 실행비로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단과 마을인큐베이터들이 연계해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 지역 의제 워크숍 등을 개최해 사회혁신 아이디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도 지원한다.

프로젝트 실행이 끝나는 내년 2월에는 지난 8월 1차로 선발한 4개 팀과 이번 대회에 선발한 26개 팀 등 총 30개팀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실시,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0팀 선정 ‘서울시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참여기회를 제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영역 주체를 발굴 나가겠다”며 “또 다양한 신규조직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사기자

북서울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자체면허 시험을 통한 빠른 운전면허 취득 !

경찰청지정 자동차운전학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취득!!

충분한 연습량에 의한 집중 교육으로 초보자도 기능:1일~2일 도로주행 2일이면 합격 누구나 합격이 쉬운 학원자체시험으로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편리한 셔틀버스 제공

편리한 무료셔틀운행으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강남구 실시간 운행합니다.

운전감독이 둔하시거나 겁많은분은 특별우대 친절교육 성심성의껏 품격높은 명품교육 책임지겠습니다.

맞춤수강 등록! 주말반 새벽반 야간반 자유반

친절상담
궁금한 것들은 바로 전화하세요

070-7711-7554
010-6866-0815

셔틀버스운행지역



1오선: 장동역, 석계역, 방악역, 도봉역, 도봉산역, 망월사역, 외릉역

2오선: 삼성역, 건대역 4오선: 수유역, 행운역, 장동역, 노원역

5오선: 군자역 6오선: 석계역, 태릉역, 와강대역

7오선: 태릉역, 공릉역, 아계역, 중계역, 노원역, 마들역, 수락산역, 장암우성아파트, 청담역, 건대역,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중화역, 먹골역

1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2~3일완성

2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2~3일완성

대형면허



대형면허
3일완성

방문운전연수



단기반 = 3일완성
정규반 = 5일완성